미륵사지 석등, 디지털로 부활하다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展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불교의 위용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있다. 백제 무왕 시기에 창건돼 조선시대 폐사된 익산 미륵사는 현재는 석탑 한 기와 당간지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라져 그 영욕의 세월을 느끼게 해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륵사지 출토 유물 중에는 '석등(石燈)'도 있다. 오래 전 석등은 어두운 밤, 사찰을 밝혔던 역할을 했다. 미륵사에는 본래 3개 이상의 석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2개의 하대석과 부재들만 존재하고 있다.

1400년 전 어둠이 내린 익산 미륵사를 밝혔던 석등이 디지털로 복원됐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은 10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익산박물관의 '미륵사지와 고대 불교사원' 조사사업 중 하나인 창건기 미륵사 석등의 디지털 복원 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3개 이상 존재한 미륵사 석등
현재 하대석, 부재 13점 남아
부재들 실측 통해 디지털복원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에 활용

현재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등 유물은 동원 · 중원의 금당지와 탑지 사이에 남아있는 하대석 2점과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 화사석, 옥개석 등 총 13점이다.


하대석과 부재만 남았던 익산 미륵사지 석등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복원됐다. 사진은 복원된 석등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나만의 석등 만들기' 체험 모습.

국립익산박물관은 13점의 석등 부재를 모아 3차원 실측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부재의 원래 모습을 디지털로 복원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조립해 창건기 미륵사 석등의 옛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실에서는 미륵사지 석등 부재를 3D 스캔해 제작한 모형을 직접 조립해 보거나, 높이 6.6m 대형 화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등명(燈明)으로 나투실 미륵불을 형상화한 미륵사 석등을 연등(燃燈)으로 제작하여 석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는 현전하는 익산 미륵사지 석등, 부여 가탑리 석등 하대석, 공주 탄천 정치리 석등 하대석 등 백제 석등 3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백제 사찰 안에 석등이 서 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여 외리 출토 산수무늬 벽돌(山水文塼)의 모티프를 활용한 3D 홀로그래픽 글래스 아트도 선보여, 백제 석등의 원형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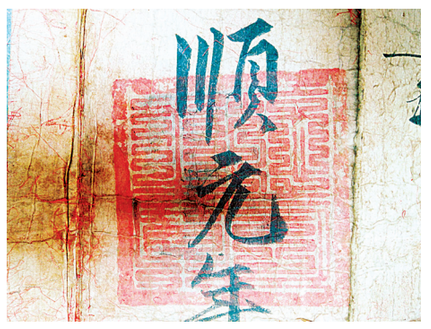
국립익산박물관은 "석등은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빛'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자, 사찰안의 어떤 조형물보다 우리 민족의 조형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요한 창조물"이라며 "미륵사지에는 이러한 석등이 3개 이상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정확히 고증 · 복원하고, 더 나아가 사찰에 재현해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등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흔하지만, 흔한 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백제 석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찰 잡역 면하노라" 세조 교지 보물된다

무위사 감역고시 등 7건 보물로
문화재청 10월 29일 지정 예고
세조 서명 · 날인 명확하게 남아
조선 초 사찰 경제사 중요 사료
색난 불상 · 진관사 태극기 '보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사진 왼쪽〉 사찰에 부여된 잡역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조의 서명〈사진 가운데〉과 어보 '시명지보'〈사진 오른쪽〉 날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당시 불교 정책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조선 세조가 사찰의 잡역을 감면해주기 위해 내린 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조선 세조가 사찰 잡역을 면제하기 위해 내린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비롯해 고려 · 조선 시대 전적 및 불교조각, 괘불도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불교문화재는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비롯해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인 〈무예제보〉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세조가 강진 무위사의 잡역(雜役)을 면제하는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이는 당시 조선왕실의 불교 정책 중 하나였다. 세조는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했고, 같은 해 7~8월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뿐이다. 하지만 강진 무위사를 제외하면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 임금의 사인)과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는 점이다. 이는 조선 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세조 당시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선 사찰 경제사와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강진 무위사에 발급된 감역교지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이 분명하다"면서 "같은 시기 작성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역사 ·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당나라 승려 법장(643~712)이 저술한 총 3권을 저본으로 1461년(세조 7년)에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중 권하(卷下)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년), 1572년(선조 5년)에 중간(重刊)된 목판본 등이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11세기에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에 속한 경전으로서, 총 200권 중 권175의 1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경전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인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고려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성격과 경전의 유통 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서의 역사 ·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599년 중수기(重修記)와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통해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복장(腹藏) 후령통에서 발견된 중수기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조각승 석준과 원오가 1599년에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보현사와 상원사의 성격 · 승려 문중 · 후원자 등에서 유사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된 대세지-관음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된다. 17세기 전반기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영색이 조성한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경상도 지역에서 '불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만든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기년명 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32년(순조 32년)에 수화승 화담 신선을 비롯해 총 17명의 화승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다.

흥천사 괘불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의 제자들인 가섭 · 아난존자,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 · 보현동자가 결합한 구성과 함께 '부처-제자-동자(문수 · 보현)' 도상을 상 · 중 · 하단으로 배치한 구도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울 · 경기지역의 괘불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17세기 승려 장인인 색난이 조성한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과 불교 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를 10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공고했다.

신성민 기자

만복승복(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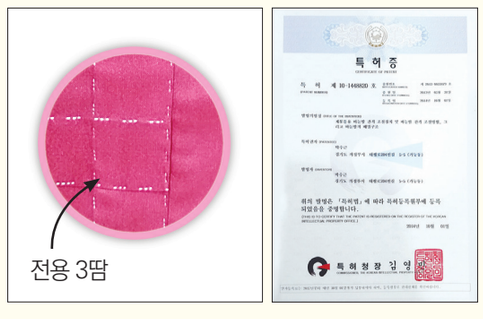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전용 3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